

2018년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 인도의 발크리시나 도시

<https://www.pritzkerprize.com/>

<https://www.archdaily.com/890126/balkrishna-doshi-named-2018-pritzker-prize-laureate>

올해 40회를 맞이한 2018 프리츠커 건축상의 영예는 발크리시나 도시(Balkrishna Doshi)에게 돌아갔다. 도시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은 최초의 인도 건축가이자 아시아인으로서는 여덟 번째 수상자가 되었다.

9명으로 구성된 프리츠커 건축상 심사위원단은 “도시의 작품들은 결코 화려하거나 트렌드를 좇는 건축물이 아니다. 그의 건축은 매우 시(時)적이면서 기능적이다. 그는 항상 건축을 통해 자신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해야 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작품에는 인도의 역사·문화·전통이 잘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인도를 대표하는 건축가, 도시계획가 및 교육자인 도시는 60년 동안 인도에 다양한 민간주택·학교·은행과 저소득층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국제적 건축 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아란야 공동주택(Aranya Low Income Housing), 산가스 스튜디오(Sangath Architect's Studio), 인도 경영 연구소(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등이 있다.

행복한 공동체가 살고 있는 집, 아란야 공동주택

평생을 인도 저소득층 가정에 적절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은 그의 노력이 드러나는 대표작이다. 1989년 완공된 아란야 공동주택은 86헥타르의 부지에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6,500개의 안락한 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어졌으며, 이 작품으로 1993~1995년 Aga Khan 건축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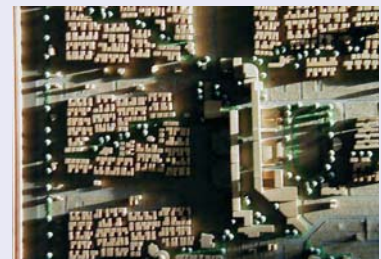
©John Pank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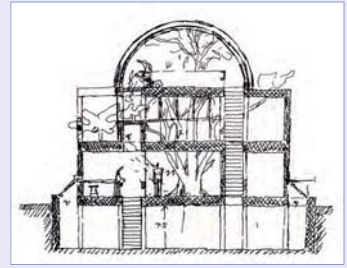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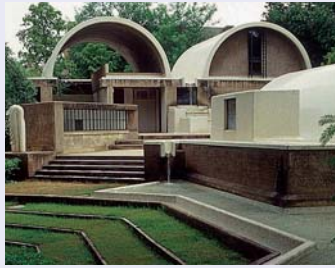
아란야 공동주택 모습과 단지 모형



©John Pankter



©VSF



©VSPF

산가스(좌)와 산가스 스케치 단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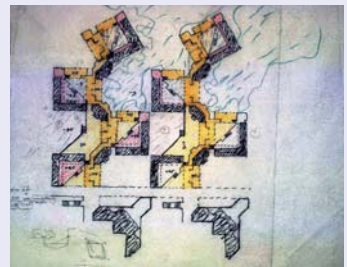
자료: https://www.pritzkerprize.com/sites/default/files/inline-files/2018PritzkerPrize_ImageBook.pdf

도시의 디자인 스튜디오, 산가스

산스크리트어로 '동행'을 의미하는 'Sangath'는 1979년에 디자인 한 도시의 스튜디오이다. 이 작품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루이스 칸(Louis Kahn)과 함께 작업한 경험을 살려 지역에 맞는 현대적 표현을 설계에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조는 반 지하이며,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테라스의 형태 및 장식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특히 건물 외벽에 재활용 세라믹 타일을 사용하여 지역의 전통 모자이크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인도의 전통적 방식과 모더니즘을 융합하려는 그의 혁신적 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후를 고려하여 설계된, 인도경영연구소

1983년 완성된 인도경영연구소는 인도의 미로와 같은 전통적 사찰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평소 '캠퍼스는 의미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여긴 도시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건물들이 서로 다양한 갤러리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더운 기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복도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녹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VSPF

인도경영연구소 도서관(좌)과 도시가 작업한 설계도면(우)

자료: https://www.pritzkerprize.com/sites/default/files/inline-files/2018PritzkerPrize_ImageBook.pdf